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스스로 있는 자'가 주시는 '깃털 구원'>의 줄거리 :

이젠 깃털처럼 가볍게 정말 홀가분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거추장스럽게 여겨 다 떨쳐버리고 나 홀로 어디 먼 타향이나 외진 숲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모든 필수적인 관계가 다 유지되는 가운데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에게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깃털 구원'이란 마음이 깃털처럼 홀가분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주시는 '깃털 구원'

(출애굽기 6:1~3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깃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 상태로 주어지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8장 등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6~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일을 하시겠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로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말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이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다른 좋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평생 버려가면서 유일한 좋음인 하나님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제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자로서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보이신 적이 없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내시고, 고된 노역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소유인 노예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속량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비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죄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빼내시고, 저주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건지시고, 마귀와 세상의 것이었던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이자 예표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에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심이라는 구원의 역사에 담긴 의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보다는 '전능하신 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구원의 비유이고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출애굽의 방식대로 열 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리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이 상징하는 보편적 구원이 일어날 때는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내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빼내심과 건지심과 속량하심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있음의 문제와 구원받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

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있음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만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란 빗나감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빗나감의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있게 된 것이고, 나의 가족들도 있게 된 것들이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것들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있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바닷가나 산에 가서 보는 풍경도 있게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빗나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마음에서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에게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존재감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있게 된 것들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나감의 죄입니다.

이로부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있게 된 것들의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 않기에 존재감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생살여탈권을 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총독 권한조차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것임을 아셨기에 빌라도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게 된 것들의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자매나 친구 혹은 이웃 사람을 비롯하여 온갖 사람과 대상들의 있게 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빗나감의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우자를 보든 자녀를 보든 마음에서 있음의 무게를 느끼지 못 합니다. 있게 된 것들을 보더라도 내 마음은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있게 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역을 하는,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빗나감의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노역을 하고 있고, 마귀의

것이 된 상태라는 것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있음의 문제에 대한 구원입니다.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스스로 있는 자’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노역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존재감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행동이 고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소유였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존재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아내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역을 하며, 마귀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예로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인륜의 차원을 떠나서 심리적인 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며느리의 집에 시부모님이 한 달간 와계십니다. 이때 며느리가 느끼는 시부모님의 무게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있음의 무게감은 곧 존재감입니다. 시부모님의 존재감이 며느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고로운 노역이 발생합니다. 시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시부모님의 기분이 어떤가에 관심을 두고, 시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시부모님과 관련하여 모든 일이 노역이 됩니다. 이것은 존재감을 느끼는 모든 대상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노역을 하는 순간에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본래 시부모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시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동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이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마음은 갑자기 홀가분해집니다. 있음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에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빗나감의 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부모님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륜의 차원이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있게 된 것들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빗나감의 죄는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에서 벗어나서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홀가분함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깃털 구원’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사장님을 마주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니다. 평사원이 직장에 출근하면 상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습니다. 상사들은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감을 발휘하는 있음입니다. 월급을 받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존재가 뿜어내는 무게감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 사장님과 회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기분이 어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몰두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회장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한 피할 수 없는 짐입니다. 이로부터 하는 모든 일이 고된 노역이 됩니다. 사장님과 회장님의 생각과 기분을 살피는 동안 이들의 소유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과 회장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상사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존재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바로가 어떤 기분이며, 바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피면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된 노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바로의 무게감으로부터 빼내시고, 고된 노역으로부터 건지시며, 바로의 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구원은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유일한 있음인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들입니다. 이러한 있게 하신 것들의 존재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의미와 연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있게 된 것들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니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니 사장님과 회장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인간관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유일한 있음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고, 있게 된 것들이 원하는 일에 종사하는 노역에서 건져지고, 있게 된 것들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있게 된 것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기분과 요구를 살피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시부모님이나 사장님 혹은 회장님은 있게 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있게 된 것들의 무게감과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무게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

으로 느낀다면 당연히 하나님 있음의 무게감을 더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각과 기분과 요구를 살피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사장님 혹은 회장님의 기분과 요구를 살피는 것보다 더 큰 노역이 된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 또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라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내어 존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감으로 느끼면 스스로 있는 힘에 의지해서 받쳐지게 됩니다. 반면 있게 된 것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힘을 내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면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하고 이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있음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내 마음까지도 붙잡고 가볍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게 된 것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있게 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할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드러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만성 빈혈이 있으셔서 집안일도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큰 형은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작은 형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서 함께 자며 배변 수발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하룻밤에도 몇 번씩 '에구, 에구, 승철이 미안하오.'라고 하시며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납작한 요강에 앉혀드려야 했는데, 50kg도 되지 않는 몸이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편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을 무렵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할머니가 전신마비에서 반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받쳐드리면 혼자 짚고 일어나셔서 식사도 하실 수 있었는데, 절반만 힘을 쓰실 수 있는데도 받쳐드리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도 들도 나무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한 마리가 태어나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십니다.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물이 스스로 있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중풍에 걸린 할머니와 같은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그것들의 존재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드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게 된 것들은 스스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 있을 힘이 없고, 나의 배우자나 자녀도 스스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있게 된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중

풍에 걸린 할머니를 드는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마음에 담는 대상이 한 둘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마음에 담고, 자녀를 마음에 담고, 부모를 마음에 담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존재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마치 중풍에 걸려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을 옮길 때 힘들듯이, 스스로 있을 힘이 없는 존재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자 하기에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의 무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기분이 어떤지 생각하면서 맞춰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노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상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빚나감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유일한 있음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게 무거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래 알갱이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거대한 히말라야산맥과 지구 전체와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하여 무한한 우주를 말씀 하나로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막강하신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에서 나를 짓누를 수 있는 무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예표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며, 노역에서 건지시며, 마귀의 소유였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장자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책임 속에서 진이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몸을 내가 있게 했습니까? 내 애인을 내가 있게 했습니까? 내 가족을 내가 있게 했습니까? 내 나라를 내가 있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있게 한 것도 아닌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빚나감의 죄입니다. 존재감을 느끼기에 그것들의 필요와 요구를 생각합니다. 그것들의 생각과 기분을 맞춰가며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나는 있게 된 것들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며 눈치를 본다면 나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며 내가 있게 한 것도 아닙니다. 빚나감의 죄는 스스로 있을 힘이 없는 존재들의 있음을 느끼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해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느끼는 존재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손에 쥐시고도 거뜬히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존재감을 느낄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예표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등의 현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가르쳐주시고, 구원은 있음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있음의 문제가 죄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실제 상황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된 노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소유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단시키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를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존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감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있음을 느낄 때 있게 된 것들의 있음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나의 상태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다시는 존재감을 느끼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도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있음에 대해서만 존재감만을 느낍니다. 그럴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게 하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기에 내가 책임지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본문 14절 이후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언급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집안이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의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있음에 대해서만 존재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로 레위 지파가 선택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된 뒤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언급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존재감의 대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을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낌으로써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내시고, 노역으로부터 건지시며, 세상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속량을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빼냄을 당하고, 건짐을 당하고, 속량 됨을 당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깃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스도 연쇄 과정 속 예수님의 몸을 입고 마주하여 존재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된 것들의 존재감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하고, 세상 것이 되었던 저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오늘 하루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